時論

柳錫春

'악령'들의 문화혁명

"힘이 없는 악은 의미가 없다. 악이 악다워지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권력이든 물리적 폭력이든 재력이든, 지식이나 기술 혹은 특수한 재능이든 상대를 강제하거나 마비시킬 수 있는 힘을 지녀야만 악은 악답게 자랄 수가 있다." '보수 논객' 이문열의 단편 '사로잡힌 악령'이 고발하고 있는 모(某) '저항 시인'의 위선이다. 1990년대 중반 발표된 이 글은 결국 2001년 미당의 죽음 앞에서 사실이 되었다.

존폐위기선 언론기능

"사장의 구속을 전후한 중앙일보 사태의 파장…을 보며 나는 칼럼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는 내용을 써야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소위 '진보'로부터 '골보수'라는 평가를 받는 필자가 1999년 12월 중앙일보에 기고한 칼럼의 내용이다.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지금 조선과 동아·중앙 같은 정론지가 모두 표적 및 기획 사정으로 언론 본연의 기능이 존폐의 위기를 겪고 있다.

어떤 지식인은 '김대중 살리기'를 한 덕에 개혁의 전위가 되고, 또 다른 지식인은 '박정희 살리기'를 시도한 죄로 반개혁의 낙인이 찍힌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비판하면 반통일 수구이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판하면 통일을 앞당기는 개혁이 된다. 80여년의 역사를 지키며 언론자유를 수호한 조선 및 동아의 독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보수집단의 들러리고, 기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세금 한 푼 내지 못한 신문을 읽으면 개혁의 첨병이 된다. 미얀마 아웅산 수치의 자유는 항상 내 일 같이 챙기는 인권 국가가,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온 황장엽 비서에게는 입 다물고 밥이나 먹고 있으라고 윽박지른다.

웃분 한 사람에게 잘 보여 따낸 공천으로 국회의원이 된 정치인이 소설로 일가를 이루어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한 지식인에게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평가를 거침없이 내뱉는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에 참여하면 신문에 글도 쓸 수 없고, 새천년민주당 아태평화재단에 몸담으면 '역사 바로 세우기'마저 거침없이 할 수 있다.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는 비판적 신문에만 적용되고, 그 보다 몸집이 훨씬 더 큰 방송은 물론 정부에 협조적인 신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J 정권 말년에 벌어지고 있는 '문화혁명' 현장의 생생한 모습이다.

무엇이 이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가. 집권욕이다. 경제를 잘 챙겨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이런 식으로 정치를 몰고 갈 필요가 없다. 지역간에 그리고 계층간에 존재하는 위화감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었다면 이런 식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다.

만약 국민의 전반적인 반응이 한번 더 집권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방향이라면 절대 이런 막가파식 개혁이 등장할 까닭이 없다. 멀어져 가는 민심을 붙들어 둘 자신이 없으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무리한 '배팅'을 하는 '권력의 악령'들이 우리를 혼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國基흔들지 말라

때 아닌 문화혁명에 가담하고 있는 권력의 악령들에게 던지는 이문열의 함축적 경고는 그래서 음미할 가치가 있다. "힘을 가지고 자라난 악은 또 나름의 성숙을 지향한다. 악이 공격성을 드러내면 사회의 대응도 적극적이 되어 분쇄 혹은 절멸의 의지로 나타나지만 그 같은 사회의 대응을 견뎌낸 악은 보다 강한 내성을 얻어 더욱 굳건히 자라가며 자신을 분식할 탈을 세련시킨다."

강준만 교수의 말대로 "20세기 한국 역사의 일부를 부정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 김대중 정권"은 이제 더 이상 집권의 연장을 위한 대한민국 흔들기를 시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속과 굴종뿐"이기 때문이다. 미당을 부정하고 조선과 동아를 부정하고 서울대학을 부정하고 이승만과 박정희를 부정하고 삼성과 현대를 부정하는 악령들이 우리에게 남겨 줄 유산은 과연 무엇인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